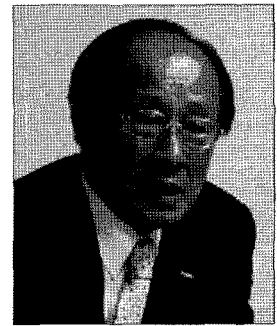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아시아 공동 물류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상근 부회장 박 은 규

본 인터뷰는 플라스틱사이언스 10월호에 기재된 인터뷰 내용으로 지난 9월 10일 본 협회 집무실에서 인터뷰한 내용이다. 박은규 상근부회장의 인터뷰를 통하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들을 알아본다.

- 편집실 -

국내 파렛트 표준화 주도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 구축에 중추적 역할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회장 이경호, 서울 마포구 도화동)는 국내 산업계 물류시스템의 기본인 파렛트와 컨테이너의 품질 및 사용수준 향상, 표준 파렛트·컨테이너의 보급 촉진 등을 통하여 물류선진화와 물류합리화를 이루고자 지난 1996년에 설립된 단체다.

올해로 설립 14년째에 접어든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역량 있는 단체로 성장, 국내 파렛트의 표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하였고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아시아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국내 파렛트 제조 및 생산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업체들까지 70여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다. 협회 창립 당시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박은규 상근부회장을 만나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 협회 연혁을 보면 처음엔 파렛트협회로 출범했던데요?

그렇습니다. 1996년 설립 당시에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산하의 한국파렛트협회로 출범하여 국가 표준 파렛트 보급과 홍보에 주력하였지요. 그러다 파렛트 표준화 업무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2004년에 산업자

원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고, 그 후 파렛트컨테이너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현재 두 개 정부 부처, 즉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산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 협회 설립 이후 파렛트 표준화에 주력해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내 산업에서 물류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것이 파렛트입니다. 따라서 파렛트를 표준화하는 것이 물류의 효율화, 물류의 자동화를 위한 기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물류란 보관에서 하역까지의 전 과정을 이르는데,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 기계로만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때 물류의 효율화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임금이 인상되고 3D 업종을 기피하게 되면서 파렛트의 자동화·기기화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관되게 하기 위한 시스템, 즉 파렛트의 표준화가 시급했습니다.

협회 설립 당시만 해도 국가표준 파렛트인 일관수송용 평파렛트(1,100mm×1,100mm T-11형 파렛트라 함)의 사용이 10% 미만으로 극히 미미했지요.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T-11형 파렛트 사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물류표준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가표준 파렛트 사용을 계몽·촉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 40% 수준으로 빠른 표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협회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파렛트 표준화를 통한 물류표준화를 이루는데 선도적, 주도적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T-11형 파렛트가 국제표준 파렛트로 선정된 경위는?

현대는 국제화 시대 아닙니까? 국가표준인 T-11형 파렛트를 국제규격으로 정합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절감하고 1995년부터 매년 ISO TC51(파렛트전문위원회)에 전문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8년간 그렇게 노력한 끝에 2003년 8월, 마침내 국제 무역에 사용되는 평파렛트 표준규격인 ISO 6780을 개정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표준 T-11형 파렛트가 국제표준 규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요?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아시아 파렛트가 표준화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는 2003년에 제1차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컨퍼런스를 국내에서 개최했는데, 당시 9개 국가가 참가해 표준화를 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에 합의하고 우선 한·중·일 3개국의 파렛트부터 표준화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조성, 3년여의 노력 끝에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규격을 제정했습니다.

이어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를 주도할 국제기구로 2006년에 APSF(Aisa Pallet System Federation, 아시아 파렛트 시스템 연맹)를 창설했어요. APSF는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국은 총 8개국(정회원 6개국, 옵서버 2개국)이며 아시아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물류표준화 인재 양성을 위해 아시아 유닛로드스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유닛로드스쿨이 열려 4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지요. 교육생은 대부분 각국의 산업표준 담당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닛로드스쿨을 운영하는 목적은 APSF를 통해서 추진하는 표준화의 원동력을 각 국가에 심기 위한 것, 나아가서는 산업 보급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제4회 APSF 정기총회
(2009.7.17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제3회 아시아유닛로드스쿨 연수교육
(2009.7.14~17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국내 중점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한국파렛트산업대상 시상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은 지식경제부장관상으로 물류표준화를 통한 유닛로드시스템을 구축코자 2004년부터 매년 1회 우리나라 기업의 유닛로드시스템이 잘 돼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합니다. 이 같은 시상식을 통해 국내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파렛트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2003년에 설립된 이 연구소는 협회 산하에 직접 설립·운영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연구소로 ISO 8611-1의 15가지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기를 갖추고 있어 파렛트의 규격, 안전성 등에 대한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ISO 규격에 대한 연구, 파렛트의 구조·재질 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합니다. 특히 이번에 플라스틱 파렛트 시험방법과 박스파렛트의 신 규격을 일본과 공동 개발하여 ISO에 규격화하는 것을 제안해 현재 심의 중입니다.

이외에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협회지 발행, 홈페이지 및 상담실 운영, 연수교육, 분과위원회 활동 등 회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협회에서 해온 일들에 대한 평가와 협회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신다면?

우리 협회는 규모는 작지만 역량 있는 단체로 설립 후 지금까지 국내 파렛트 표준화와 물류표준화를 선도해왔을 뿐 아니라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 구축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평가합니다. 지난해에는 ISO/TC51(파렛트 전문위원회)WG2, WG8의 컨버너(좌장)국으로 선출되어 파렛트 분야의 국제 리더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내 표준파렛트 사용률을 70%로 올려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APSF를 통해 아시아 각국에 T-11형 파렛트의 보급을 촉진하는 등 아시아 물류 표준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 아시아 각국의 유닛로드 관리자 양성과 세계 최대의 파렛트풀 육성 등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 구축에 더욱 매진해 아시아 물류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단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